

# 광주·전남 부동산 쏟아붓는 외국인... 매수액 5.5배 쾡충

(전남)

**조오섭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11년새 매수금액 규모 급증  
중국인 1위... 18배 증가  
“기초적인 현황 파악 필요”**



지난 2018년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모습 /뉴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광주·전남에서도 해마다 늘어, 최근 1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시장 교란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기준 광주 지역 건축물(주택·오피스텔·상업 업무용건물)을 매입 규모는 2010년 34억 원·30건이었다.

매입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2억 원·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이 2.7배 올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47건·78억 원에 달해 추이대로라면 증가세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광주 지역 아파트 매수는 2016년 31호, 2017년 24호, 2018년 34호, 2019년 43호, 2020년 46호 등으로 나타났다. 5년새 4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억(17건) ▲2011년 50억(43건) ▲2012년 31억(38건) ▲2013년 23억(34건) ▲2014년 36억(40건) ▲2015년 65억(70건) ▲2016년 82억(75건) ▲2017년 66억

(62건) ▲2018년 70억(91건) ▲2019년 89억(93건) ▲2020년 94억(122건)으로 확인됐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 규모가 5.5배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3억 원(74건)에 이르렀다.

특히 아파트 매수가 급증,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 새 67.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8321억 원(256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조5946억 원(8646건)으로 11년새 3.4배 가량 늘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건축물 매수가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수도권 건물 매수 규모는 2조1897억 원(6468건)으로, 금액 기준 84.39%에 달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에서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매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엔 가족 관계 확인,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화순군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화순군이 결혼 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주시청차미디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 교육을 추진,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결혼 이민자 10명이 참여, 영상을 제작해 모국 지인 등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나 한국의 음식에 모국의 재료나 소스를 조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시작한 프로그램은 10월까지 12차례 진행된다. 미디어 이해, 게임을 통한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김태수 기자

## 광양시 지자체 부문 최우수 SNS 등극

광양시 SNS가 재미있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지자체 SNS로 호평받고 있다.

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오롯이광양’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6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해, 기관 SNS가 가진 틀을 깬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로 시민과의 소통을 인정받고 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책과 생활정보 등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제공하고 광양 곳곳을 알리는 감성적인 사진과 영상 콘텐츠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과도 소통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 공식 유튜브 ‘오롯이광양’은 현재 구독자 9,700여 명을 기록하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전라남도의 ‘전남뜨뽀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 여수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한창’

여수시는 금년 1월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건립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당초에는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전용구장으로써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비 20억 원을 증액해 총 공사비 95억 원, 12코트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목 터파기 공사와 건물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될 위치는 진남체육공원 내 야구장 바로 옆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관, 인라인경기장, 수영장 등 기존 공공체육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각종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김용학 기자

# 경북형 혁신학교 ‘미래학교’ 10곳 공모

**경북교육청 15일까지 접수  
교당 평균 5000만원 지원**

경북교육청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경북미래학교’ 10곳을 공모한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미래학교는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학교’다.

공모 자격은 ‘예비미래학교’를 1년 이상 운영한 초·중·고다.

미래학교 지정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2

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교직원 신청 동의율 75% 이상인면서 경북미래학교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 학생중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 학교와 지역이 연계해 혁신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평균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미래학교 10교, 예비미래학교 50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미래학교 10교를 신규 지정한다.

예비미래학교는 미래학교의 전 단계로 1년 단위로 운영된다.

경북미래학교의 핵심추진과제는 ▲공정성, 민주성, 전문성, 지역성이 라는 경북미래학교 핵심가치 공유 ▲학생·교직원·학부모 간 협력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 인식과 협력적 실천 ▲학생참여형 수업, 평가의 변화를 위한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사고의 전환과 창의력 중심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학습공간 혁신 ▲



지난 7월 경북미래학교인 구미 봉곡초 2학년 학생들이 그림책 ‘노란 양동이’를 읽고 이야기유가 한 일을 함께 경험하며 마음을 느껴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광주시, 교통약자 배려 ‘낙제 수준’

**저상버스 운행률 타 지역대비 ↓  
점자블록 설치·관리 등도 ‘영망’**

광주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제출한 ‘광주시 저상버스 운행 현황’에 따르면 시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261대이며, 운행률은 26.1%로, 서울(59.6%), 부산(27.3%), 대구(36.9%), 대전(31.3%) 등 다른 특·광

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 장애인콜택시는 총 116대로 법정대수 186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로 인해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광주시에서 실제 파악하고 있는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20분 59초이지만 실제 이용객들은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블록 관리도 엉망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 ‘신안 명품배’, 올 첫 미국 수출길 올라

올 연말까지 550t 15억 소득 기대  
전남 신안군은 최근 신안배영농조합법인에서 2021년산 신안 명품배의 미국 수출을 위한 첫 선적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안배는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물량은 13t이며, 올 연말까지 550t 15억원 상당을 수출할 계획이다.

고품질 명품 신안배는 1999년부터 미국 LA와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출

을 해왔으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200~600t을 수출해 배 생산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수출전략 품목인 배의 얼룩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선별과 최첨단 관리시스템을 지원해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고 품질의 신안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꽃가루, 봉지, SS기, 보형료 등을 배 재배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서 협력 메시지 전달  
▲ ‘대장동 킨맨’ 유동규, 첫 검찰 소환 조사 속도 /사진 뉴스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 SG위원회’ 출범  
▲ 던킨 제보자 추가영상 공개... SPC “허위 사실” 일축



▲ 서울 신규확진 512명... 어르신 돌봄 시설·시장서 확산 /사진 뉴스스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 2023년 전부서 확대